

“서로 존중하는 나라로 이끌어주길”

국회 성악회 후반기
회장단 취임법회
회장 강창일 의원
부회장 주호영·김영주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이 주변의 부조리와 환경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자라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듯이 우리 국회 정각회 불자의원들은 정법을 수호하고 불국도의 일꾼으로 자비와 희생의 대승보살정신을 발휘해 국민민복을 이루고 국가발전에 초석을 다지는데 정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 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서 열린 제19대 국회 정각회 후반기
회 회장 취임식'에서 정각회원
들은 이같이 밝힘다. 국회 정각
회는 정파를 초월해 불자이거나
불교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의 신
행모임이자 불교계와 정치권을
있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불
교단체다. 지난 1983년 4월 제11
대 국회에서 69명의 불자국회의원
으로 출범한 정각회는 총선에 맞
춰 4년마다 새롭게 출범해 활동하
고 있다.

제17대 국회 때부터 여야가 전반기와 후반기 정각회장을 맡아고 뜻을 모은데 이어 제19대 국회 정각회 후반기 회장은 야당인 새

정치민주연합의 강창일 국회의원이 많았으며 19대 국회 정각희 전 반기 회장을 역임한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회 부의장)은 정각희 명예회장 소임을 맡게 됐다. 또한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각각 부회장 소임을 맡았다. 간사장은 이진복 새누리당 국회의원, 간사는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임승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맡아 일하게 됐다. 아울러 감사에는 여상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맡았다.

새롭게 출범한 제19대 국회 정
각회 후반기 회장단은 38명으로까
지 줄어든 회원을 배가시켜야 한
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위해
후반기 회장단은 정기법회와 성지

논제 등을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증강할 뿐만 아니라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과 불교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했다.

이날 취임발원의 강경일 정각회장과 정갑윤 정각회 명예회장의 헌화를 시작으로 삼귀의와 한글 받아심경 봉독, 인사발, 공로패 수여, 취임사, 축사, 발어, 발원문 낭독, 사후서원, 기념촬영, 리셉션 등으로 진행됐다. 강경일 정각회장은 취임사에서 “19대 후반기 국회 정각회장으로서 회원님들과 함께 안으로는 ‘참 나’를 찾는 수행으로 지혜와 덕을 쌓고, 밖으로는 국정을 안정시켜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면서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하고 인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최고 미덕으로 삼아 국회 정각

제19대 국회 정각회 후반기 회
장 감찰일 의원은 지난 8일 취
임사를 통해 '인연의 소중함
과 상생의 가치'를 최고 미덕
으로 삼아 "국회 정각회가 사
부대중과 함께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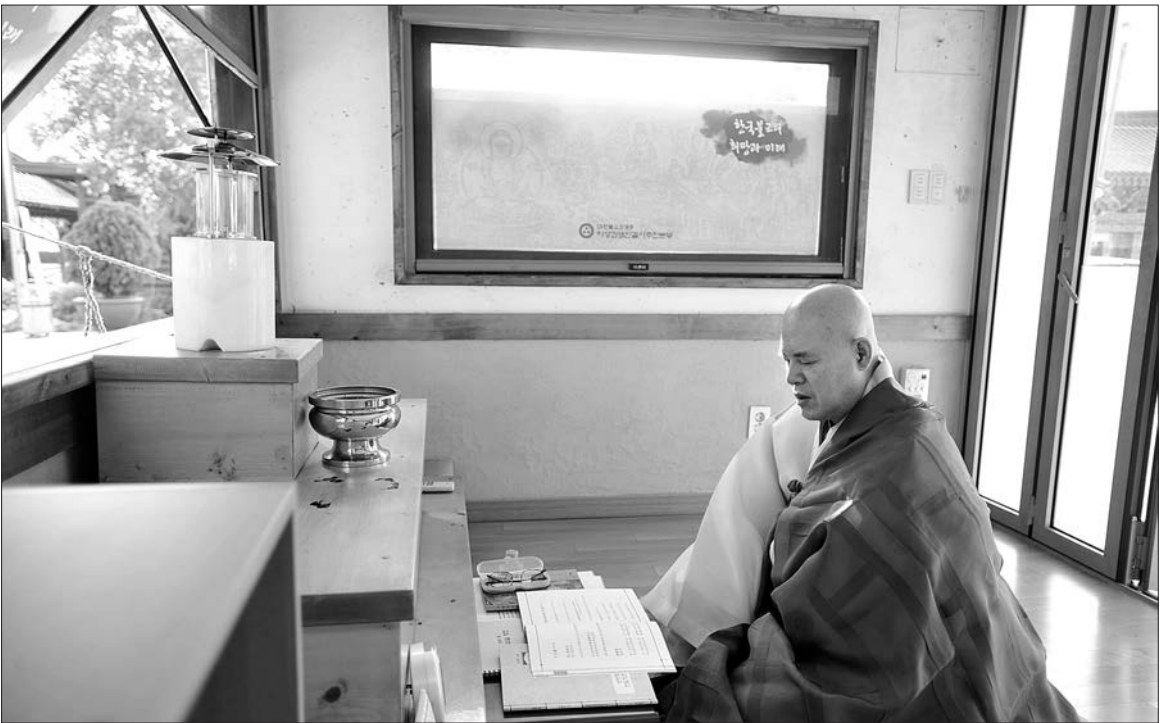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회가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에서
“전법과 포교, 보살행의 실천으로
부처님이 걸어간 길을 생각하면
오늘 날이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신
오의 위기 에 대한 해법도 자연스
레 나올 것”이라며 “언제나치려 부
처님의 지혜를 빌어 서로 신뢰하
고 서로 존중하는 살기 좋은 나라
를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강창일 신임 정각회장은 1952년 제주에서 태어난 뒤 배재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3선 국회의원이다. 특히 국회 정각회 부회장과 민중통합당 연동위원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원 등을 맡아 오면서 불신 같은 불가 국회의원으로 불리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7일 조계사 내 생명평화 1000일 정진단을 찾아 생명평화 정진과 세월호 참회 발원 기도를 올렸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아프리카 여성 인재육성 나선다

아름다운동행·덕성여대
유엔여성기구 등과
공동프로젝트 추진 계획



홍승용
덕성여대 총장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이 덕성여대와 손잡고 아프리카 여성 인재육성에 나선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7월 1일 한국불교여성문화연구소와 4층 협연결실에서 덕성여대와 '아프리카 여성 창의인재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름다운동
행과 덕성여대는
아프리카 여성
인재 양성을 목
표로 유엔여성기
구 등 국제기구
와 공동 프로젝
트 및 훈련프로
그램을 추진해 나
갈 예정이다.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홍승용 덕성여대 총장은 8월 예정된 차세대 여성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대회를 통해 설명한 뒤 "조계종이 아프리카에 대한 자니아 건립 중인 학교 건립사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덕성여대는 지난 2011년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차세대 여성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8월 4일부터 15일까지 덕성여대에서 제2차 세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염영미 기자 che11@ibulgyo.com

“이제 교구별로 확대돼야 할 시기”

‘청년출가학교’ <1면에 이어>

식발을 결심한 이유를 묻자 “출가 학교 이전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머리를 깎고 마음을 다잡았다”며 “남자친구한테 차일가 싶지만 머리카락 때문에 헤어진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웃었다.

청년출가학교는 지금까지 3기를 수료하며 총 120명의 행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3명이 출가자의 길을 걷고 있고 3기 몇 명도 출가의 뜻을 전했다. 교육원 교육국장 가섭스님은 “청년출가학교에서 출가자가 배출되면 종당만, 오로지 출가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대 청년들에게 출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삶의 대안으로서 출가의 길을 제시하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법인스님은 "청년출가학교가 청년운동, 청년불교운동, 청년출가운동이 되어 한다"고 말했다. "인연이 무르익으면 출가할 수도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면 세속에서도 출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스님은 3년의 시행을 거친 청년출가학교가 이제 교수별로 확대돼야 할 시기임을 피력했다.

"청년출가학교 형태의 프로그램을 교구부사마다 상시적으로 진행하다보면 출가자 영입은 물론 지역불교 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젊은 층 포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자비의 전화 '아동멘토' 양성교육

초등학생 정서적 지원
복지시설 심리상담 활동

민도의 정서를 지원한 멘토 양성교육이 실시된다. 사단법인 자비의전화는 오는 14일부터 9일간 텔러빌에 통합정보센터에서 상담관 자격증 소지자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아동상담자별 멘토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론과 실습, 세미나 등 3시간으로 이뤄진 멘토양성교육은 초등교육 고학년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며, 귀한 이수자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을 하

노력 지원한다.

이번 교육의 특징은 매 회기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동의 정서지원에 필요한 주제를 설정, 현장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한다는 점. 이를 위해 정서지원 멘토의 역할과 아동기 심리적 발달 특성, 성교육, 공감과 지지기법, 의사소통을 이끌어 내는 기법 등을 다양하게 교육한다. 또 마지막 교육일인 7월25일에는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근후 박사를 좌장으로 세미나를 갖는다.

수강료는 없으며, 교육을 마치면 소정의 이수증을 발급하고, 추후 시설 파견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익주 기자 jsahn@ibulgyo.com

연화정 1800만원 상당 보이차 보시

아름다운동행, 다도 체험
아프리카 학교 등에 활용



왕창일
연화정 대표

보이차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볼
자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직접 재배
한 차(茶)를 기부하는 보시행을 일
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원왕일 연
화초 대표의 지난 8일 공익기부자
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사무실에서 전달
식을 갖고 1800만원 상당의 보이차
200편을 기부했다.

연화초의 보시행은 이번이 처음
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는 차가

필요한 복지시설
이나 다도 수업
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불교계
어린이집 등에
차 문화를 보급
하기 위해 1200
만원 상당의 보
이차 200편을 기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연화정이
보시한 보이차를 전국 복지시설에
배포해 노인, 청소년, 어린이들의
다도 체험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위한 금금 마

산중총회 소집공고

종헌 제91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 **소집 일시:** 불기2558(2014)년 **8월 4일** 월요일(음 7월 9일) 오후 2시
- **소집 장소:** 제16교구 본사 고문사
- **안 건:**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
- **구성원자적:**
 - 당해 교구의 재직승으로 **법계 중역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총무원**
 -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서 재직 중인 **비구**
 -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나, 다만 비구나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중역 이상의 당해 재직 비구나 중 법계, 승량, 연령이 높은 승으로 정한다.
 -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만도원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최일 전 4년 이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역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년거 이상 성만한 자**
 - 당해 교구 대중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 ※ 다만, 산중총회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재직을 계속한 자로서 지각2회에 강회 되었을지 지대한 사항은 교구장권리위원회로 문의함(기비합니다.)

- ### ㉠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 후보자 선출
1. 입후보자 자격
 - 법계 종역 이상, 연령 70세 미만의 비구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산중총회법 제9조제2항, 중무원법 제6조제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앙총무기관 국장급 이상 중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
 - 말사주지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 중앙총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중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만거 이상 성만
 - 강원이나 울릉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
- ### ㉡ 입후보자 등록기간
- 불기2558(2014)년 7월 23일(수) ~ 7월 25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선거법 제14조에 의거 경직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중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7월 22일(화) 오후 5시까지 해당 중무직을 시작하여야 함

- ① 입후보자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선관위 양식) 1부
 • 이력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제적등본(단, 출생년도 이후 분기로 인한 독후적, 호주승계나 본적지 1부
 변경 등에 의해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 제적등본 일체를 추가 제출)
 • 경력 또는 안거 증빙서류 1부
 • 종별 준수 각서 1부
 • 신원조회서 1부
 • 사진(반명함판) 3매
- ② 거주증 신고기간**
 불기2558(2014)년 7월 12일(토) ~ 7월 18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③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불기2558(2014)년 7월 26일(토) ~ 7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④ 입후보자등록·거주증신고·구성원명부열람 장소**
 제16교구 선거관리위원회(고운사 중무소)
- ⑤ 문 의 처 :** 제16교구 선거관리위원회(전화: 054-833-2324)

불기|2558(2014)년 7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선거관리위원장 용 담